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호덕저수지서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처훈련 실시

유관기관 협업 통해 신속 대응체계 점검... 실제 상황 가정한 실전형 훈련

뉴스일자 : 2025년05월16일 16시06분



[GBS방송 이명수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 고흥지사(지사장 박승수)는 지난 5월 15일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에 위치한 호덕저수지에서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에 대비해 저수지 붕괴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태풍,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전 중심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훈련에는 고흥군청을 비롯해 과역면사무소, 고흥소방서, 고흥경찰서, 긴급동원업체, 지역 주민 등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궂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상황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훈련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가동 ▲저수지 제방 이상 감지 및 상황전파 ▲관계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점검 ▲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긴급 투입 ▲주민 대피 유도 및 안전 확보 등 전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별 역할과 협업 절차를 점검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news.co.kr> 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